

SK인천석유화학, 면적초과 “적발”

공장등록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 넘어 ... 11월27일 검증결과 발표

SK인천석유화학이 도시계획 면적을 초과해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근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11월25일 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감사 결과를 일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근 국장은 “감사 결과에서는 공장등록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SK에서는 시가 적용한 법과 다른 법을 적용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사후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장 증설이 이루어졌고 미신고 시설물이 현재 알려진 28기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역 주민 등 1만3590명이 제출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 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 내용을 계속 파악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시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의 주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위해성 검증단>은 11월27일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검증 결과 발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3개월 활동을 마치게 된다.

검증단 관계자는 “인천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증설 공사가 중단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6>